

연예

12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블랙핑크, 웹블리 공연 최고 그룹 선정

걸그룹 블랙핑크가 영국 웹블리 SSE 아레나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2019년 최고 그룹이자 가장 인상적인 공연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웹블리 SSE 아레나는 11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베스트 그룹'과 '올해의 이벤트'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이벤트'는 베스트 스포팅 이벤트, 베스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베스트 그룹,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등 4개 분야를 종합해 수여한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5월22일 해당 장소에서 공연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케이팝은 상상치 않은 순간을 가졌다. 팬들이 블랙핑크의 무대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강다니엘, 3월 활동 재개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3월 활동을 재개한다. 강다니엘은 SBS미디어넷의 신규 채널 SBS FiL이 3월 선보이는 '안녕, 다니엘'을 통해 무대에 복귀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의미를 더한다. '안녕, 다니엘'은 여행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강다니엘의 '나 홀로 여행기'를 담는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에서 촬영 중이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솔로 활동에 나섰지만 11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무대를 잠정 떠나 있었다.

팽수, 코로나 예방 영상 재능기부

인기 캐릭터 팽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나섰다. 팽수가 감염증 예방수칙을 담은 영상 콘텐츠에 재능기부했다. 해당 영상은 15일 오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를 통해 공개된다. 이후 BBS가 TV를 통해서도 상시 방송한다. 영상에서 팽수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기침 예절이나 '깨끗하게, 뽀뽀뽀 비누로 비누칠해요'라며 올바른 세 손 씻는 방법 등을 담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30초 이상 손을 잘 씻어도 감염률의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리의 만찬' 시즌2 MC 여전히 논란

갑작스런 진행자 교체로 논란을 빚은 KBS 2TV '거리의 만찬' 시즌2와 관련한 제작진의 발걸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KBS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12일로 예정했던 관련 기자회견회를 취소하고 "'거리의 만찬' 시즌2를 앞두고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자진 하차로 제작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리의 만찬' 제작진은 기존 진행자인 가수 양희은·방송인 박미선·가수 이지혜를 김용민 시사평론가로 교체하려다 그의 과거 여성혐오 발언 사실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 평론가는 자진 하차했다.

전세계 뒤흔들 '케이컬처'는 계속된다

방탄소년단 @BTS_twt · 10시간
봉준호 감독님 정말정말정말 정말로 정말이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 #우식씨
눈물흘리는거잘봤어요



"BONG(봉준호)과 BTS!"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데 이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미국 아카데미 최고 권위의 작품상을 받으며 케이컬처의 파위를 과시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트위터를 통해 봉 감독과 '기생충' 주연 최우식에게 보낸 SNS 축하 메시지. (오른쪽 사진부터) 사진출처 | 방탄소년단 트위터·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생충 신드롬, BTS가 바통터치

서구문화 장벽 깬 '봉테일'에 열광 유력지들 "한반도 경계 넘어섰다" BTS 21일 '맵 오브 더 솔:7' 컴백 벌써부터 역대급 기록 경신 전망

2월, 케이컬처(K-Culture)의 파워가 전 세계를 뒤흔들까.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오스카 트로피를 4개나 품에 안은 역사적인 순간과 짜릿한 희열이 채 가지지 않은 가운데 10여일 뒤 또 한 번 케이컬처의 위상을 드높일 '빅 이벤트'가 시작된다. 봉준호 감독에 앞서 2년 전 한국

대중가요를 넘어 세계 대중음악사까지 새롭게 쓴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과 방탄소년단은 각각 한국영화와 케이팝을 대표해 세계시장의 주류로 인식되어온 서구문화의 높은 장벽을 깬 상징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전 세계적 대중에게 가 닿은 보편적인 메시지로 세계영화사와 음악사를 새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봉준호 감독은 10일 아카데미상 수상 직후 미국 L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기생충'에 대해 자

평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도도 "한국 문화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초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과 '기생충' 열풍을 분석하며 "한국 가수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세우고, 영화 '기생충'으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지미 팰린 토코스에 초대돼 한국어로 답하는 시대"라면서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세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세계적 호평과 관심 아래서 방탄소년단은 10개월 만인 이달 21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을 선보이며 컴백한다. 이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각종 티저와 동영상 등을 공개하고 "역대급"이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각종 기록을 써내려온 이들이 이번에 또 어떤 기록을 경신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벌써부터 네 번째 미국 빌보드 1위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맵 오브 더 솔:7'은 2018년 5월 발표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이후 내놓는 정규앨범이다. 5~6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이나 음원으로 1곡만 발표하는 디지털싱글 형태를 주로 선보이는 여느 아이돌 가수들과는 다른 음반 활동 행보를 과시해온 만큼 롤링스톤과 빌보드 등 해외 음악매체들은 올해 주목되는 신보 리스트에 이들의 새 앨범을 일찌감치 포함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제 2의 기생충'을 만들기 위해선...

제작비 상승·대작 중심 시장 우려
오동진 "스크린 독과점 해결부터"

'기생충'이 처음이자 끝이 될 수는 없다. 세계영화의 역사를 바꾼 '기생충'의 성과가 단일 작품의 성공으로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위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에 오른 직후 국내 영화계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창의

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영화 제작비 상승과 맞물려 대작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화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동시에 자본력을 갖춘 몇몇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주도하는 영화산업에서 신인들의 새로운 도전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새삼 뒤따른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11일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산업이 향후 5년 정도는 연명할 수 있는 산소마스크를 씌워줬다"면서도 "현재 영화산업 구조에서는 또 다른 '기생'



영화 '기생충'

충'이 나오기 어렵다. 다양성과 창의력 발전을 차단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생충'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영화는 검증받은 일부 감독과 스타급 배우 중심의 블록버스터 제작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흥행 가

능성이 높은 작품의 몰량 공세와 스크린 몰아주기 1000만 흥행 편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사상 처음 다섯 편이나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바람 일으킬 신인의 등장은 주춤하다. 역량을 과시할 '포스트 봉준호'의 등장을 위해 소위 '젠' 영화만 독식하는 스크린 독과점 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신인 발굴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듯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날 "또 다른 봉준호 감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신인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20일 개막하는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을 소개하는 '영 코리안 시네마' 캠페인도 발의 계획이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아름쌤·유민호·주먹이...매력만점 '감초 3인방'

소주연 '김사부2' 윤아름으로 매력
채종협 '스토브리그' 얼굴마담 인기
유수빈 '...불시착' 능청스러운 연기

'아름쌤(선생님), 유민호, 주먹이'. 드라마 애시청자라면 이들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릴 것이다. 각각 SBS '낭만닥터 김사부2'와 '스토브리그', tvN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중인 연기자 소주연, 채종협, 유수빈이다. 이들은 나란히 1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넘고 간만에 안방극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세 드라마의 인기를 발판삼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소주연은 '낭만닥터 김사부2'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윤아름 캐릭터로 발랄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드라마의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자처하는 동시에 간호사 박은택 역의 김민재와 로맨스도

펼친다. 덕분에 시청자 사이에서는 "'아름쌤'이 나오면 속이 편안하다"는 응원까지 받고 있다.

2018년 데뷔해 설움 많은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던 소주연에게는 이미지 변신의 무대로도 통했다. 데뷔작인 MBC '내사랑 치유기'(2018)와 작년 KBS 2TV '회사 가기 싫어'에서 각각 시덕과 상사들에 치이는 연기를 소화했다.

채종협은 첫 드라마인 '스토브리그'로 단번에 시선몰이에 성공했다. 극중 프로야구단 드림즈의 투수 유민호 역을 연기하면서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높였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등번호를 새긴 유니폼 굿즈 판매 순위에서도 강두기 역의 하도권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다.

모델 출신으로 186cm의 훗날 키와 잘생긴 외모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의 홍보팀 권영화 씨는 "마른 체격이라 드라마 시작 전 몸무게를

5~6kg가량 늘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통해 체격을 키웠다"고 밝혔다. 채종협은 원래 야구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드라마를 위해 야구 공부를 하다 어느새 '야구광'이 됐을 정도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김주먹으로 활약하는 유수빈은 최근 방송가와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신성 '감초 연기자'로 꼽힌다. 한국 드라마 팬인 북한군 병사를 연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나 실감나는 북한 사투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작년 영화 '엑시트'에서는 구조 요청을 하는 모스부호인 "따따따"를 외치는 장면으로 이름을 알렸다.

차기작도 일찌감치 정했다. 하반기 방송하는 tvN '스타트업(가제)'에 출연한다.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을 집필한 박해련 작가의 신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름쌤' 소주연



'유민호' 채종협



'주먹이' 유수빈